전주시민축구단, 5일 2시 홈 3연승 도전

전주시민축구단이 홈 3연승에 도전한다.

전주는 오는 5일 오후 2시 전주대운동장에서 '2024 K4리그' 7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홈경기를 갖는다.

지난달 21일 거제시민축구단과 29일 평장유나이티드축구클럽을 각각 홈에서 각각 2대0과 1대0으로 승리해 리그 홈 2연승을 달리고 있다.

특히 전주는 이날 승리를 거둬 홈 3연승과 상위권 안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주는 승점 9점(2승 3무 1패)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날 승리하면 상위권에 진입한다.

이번 홈경기에서 전주는 다양한 전술과 공격 축구로 많은 골을 넣어 승리를 거두고 재미있는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공격에서 김도형과 박배근, 오태환이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선보인다. /장은성 기자

'쇳가루 없는 친환경성 칼갈이 개발'

벌칸코리아-전북대, 공동연구… 에폭시지석 특수연마재 적용 6단계 정밀 공정 · 5개 특허

전북대학교 창업지원을 받은 (주)벌칸코리아(대표 박준선)가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친환경 칼갈이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벌칸코리아의 박준선 대표는 공무원으로 재직 시 농촌 대민 봉사를 나갔을 때 농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칼과 낫의 날갈이 문제를 접했고, 금새 망가지도 무뎌지는 낫을 갈아주는 봉사를 하며 효율적으로 칼을 갈 수 있는 기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박 대표는 더욱 효과적인 칼갈이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LINC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에 신청, 전북대 유인호 교수와 매칭돼 6개월 동안 대학의 각종 자문과 지원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인 칼갈이 제품 개발에 나섰다.

특히 벌칸코리아가 개발한 칼갈이는 에폭시지석 특수연마재를 적용한 6단계 정밀 공정으로 칼갈이 시 나오는 쇳가루가 없는 친환경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존 칼갈이는 칼날 끝과 미세 크랙 사이에 점착된 미세 쇳가루가 발생해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 섭취 등 건강상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 곡면 날갈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한 제품으로, 기존 날갈이보다 수준 높은 절삭력을 제공하면서도 쇳가루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6단계 정밀 가공이 가능하고, 곡면 날갈이로 디자인 되어 일반 칼이나 가위, 낫, 미용가위, 의료용 기구 등 다양한 날의 관리가 모두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칼을 가는 칼갈이 회사는 많지만, 낫과 미용가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연마장치는 벌칸코리아가 개발한 이 제품이 유일하다. 이같은 우수성을 통해 벌칸코리아는 친환경 곡면 날갈이와 관련해 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전국대회서 맹활약

전북 유일 여자배드민턴실업팀인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전국대회에서 맹활약 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은행 배드민턴팀은 최근 경남 밀양시 배드민턴장에서 열린 '2024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여자단식에 나선 이세연은 1회전 공여진(화순군청)을 2대 0, 2회전 기권승, 3회전 조예림(MG새마을금고)을 2대 0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준결승에서 유아연(화순군청)을 2대 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이세연은 결승서 이다희(정관장)를 2대 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성승연와 윤민아조는 여자복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전북은행 배드민턴팀의 저력을 보여줬다.

김효성 감독 "올해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 등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남원 도통동, 사례관리 대상자 이불 세트 등 지원

남원시 도통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1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서 생일 축하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불 세트를 지원했다.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으로 방문하게 된 대상자는 지체장애자이며 가족사 등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껴 왔었다.

이에 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대상자를 위해 1인가구 1:1 사랑나눔고리 사업을 연계하여 자원봉사자가 월 2회 가정방문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시설관리원 · 미화원 등 초청 간담회 개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2일 관내 시설관리원과 미화원 등을 초청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빅뱅 아이디어 30' 정책 의견을 듣는 다과 및 오찬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초청 간담회에는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시설관리원, 미화원, 경비원, 행정대체(시설관리직)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전북교육 10대 핵심 정책 등을 공유하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주길 당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추 교육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은 단지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멈추지 않고,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든든한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설관리원과 미화원들의 휴게 공간 개선과 간담회 정례화 등을 요청했으며, 장수교육지원청과 소속 학교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제18회 전국 장애인가요제, 5월 11일 개최

제18회 전국 장애인가요제가 5월 11일 전주풍남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WBC 복지TV 전북방송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과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한다.

전국의 장애인등록자 만15세 이상 남, 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5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처는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1 5층, 전화 (063-231-6669, 286-6678)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임실군가족센터, 중년기 부부교육 실시

임실군가족센터(대표 심민)가 임실군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년기 부부 20명을 대상으로 성수산 왕의 숲에서 부부교육 1회기를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년기 부부의 욕구와 자아를 탐색하고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부부교육은 총 3회기 교육과정으로 △1회기 부부역할교육(4.27) △2회기 부부갈등 예방교육(5.21) △3회기 필봉문화촌 굿(GOOD) 공연 관람 등 이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도통동, 6대핵심과제 실천 결의대회 가져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는 지난 5월 1일 도통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민중심 역동적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추진은 촘촘한 주민돌봄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부서-읍면동간 시정공유강화, 읍면동장의 역할 및 책임강화, 핵심과제와 유관부서 간 연계 추진으로 시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에 있다.

6대 핵심과제로는 △1일 1가구 소통행정 △우수시책 발굴 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주민수혜강화 △생활관계인구 증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화 및 12대 실행과제가 있으며, 과제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을 해야 하며, 특히, 우수시책 발굴 운영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주민편익 증진에 대한 동장의 역할 및 책임강화 행정에 집중하고 있다.

도통동 우수시책은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제공 △SNS 소통채널 구축 △어르신 휴대전화 안전벨트 등 8개 사업으로, 총 10건의 시책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통동은 13건을 발굴 운영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간안전망 대구남구연합회, 진안군에 고향사랑 기탁

진안군은 2일 민간사회안전망 대구남구연합회(이하 연합회)이 진안군 산악초타운 홍삼살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동 단위의 인적안전망을 구성,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는 총원 400명 정도의 자발적 민간 조직단체이다.

이번 기부는 지난 3월 12일 시행한 전춘성 진안군수의 고향사랑기부 챌린지 참여(자매결연 4개 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 은평구,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를 보고, 대구 남구 연합회에서는 직접 자매결연지인 진안군에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뜻을 밝혀 성사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PNC 양성문 대표, 순창에 고향사랑 500만원기탁

순창군은 2일 PNC건설 양성문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PNC건설은 전주시에 위치한 기초공사 전문 건설업체로, 친환경 자재를 기반으로 한 eco-D 공법을 사용하여 연약지반을 빠르게 고형화시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성문 대표는 "태어난 고향이 순창은 아니지만 형님인 한일모터 양성일 대표가 순창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순창에 사업차 자주 방문하면서 인연이 이어져 순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군 한마음장학회 · 대진건설, 훈훈함 전달

무주군은 지역인재 양성과 이웃돕기에 뜻을 전하는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적상면 한마음장학회는 적상면 출신 박지우(대학교 2학년)학생에게 장학금 1백만 원을 전달했다.

고귀식 회장은 "도시 대학에 나가서 공부하는 적상면 출신 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상면 한마음장학회는 1993년 설립됐으며 12명의 회원들이 매년 적상면 소재 초 ·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적상면 출신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무풍면에서는 기초생계수급자 가정이 무풍면 ㈜대진건설의 도움으로 집수리를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정종근 전 서부산림청장 등에 명예 시민증

남원시 2일, 시정 발전에 기여한 정종근 전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소재실 전 남원소방서장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명예 시민증은 2005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명이 선정되어 남원시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정종근 前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춘향골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남원 양묘 사업소 운영 등으로 연간 12,000명의 지역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소재실 前 남원소방서장은 관내 사고 발생에 신속히 현장에 달려가는 탁월한 지휘력과 구조 구급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일상탈출 행복충전 나들이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일과 2일, 치매안심마을 주민과 치매예방교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상탈출 행복충전' 나들이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번 나들이는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자연체험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알아보기, 내장산 자연사랑길을 걸으며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줍기, 케이블카 타고 내장산 천연기념물 나무 군락지 탐방, 임산물체험단지 강정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됐으며,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정서적 안정과 마을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안심마을 주민은 "마을 이웃들과 함께 추억도 쌓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관찰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친화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